

석유화학 가격공세 가공기업 살려라!

정부, 대-중소기업 원가상승분 분담 유도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확대

정부가 기초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9월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초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늘렸으나 필요시 추가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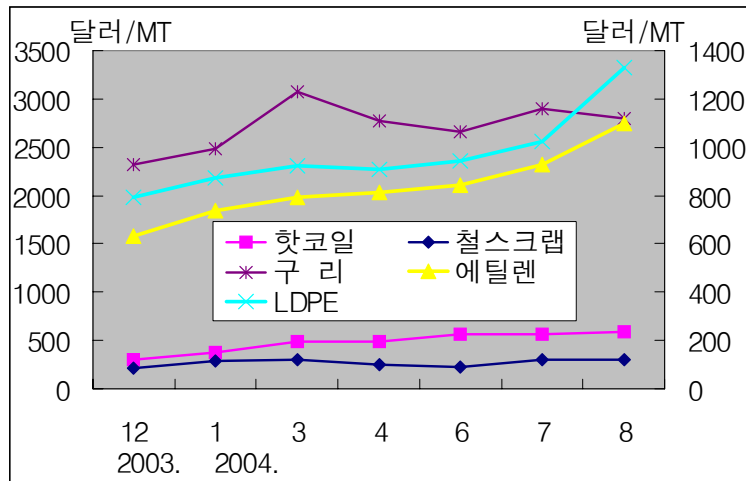
또 원청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원가 상승분 분담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원자재 비축규모를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산업용 원자재난은 2004년 3-4월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석유화학, 철강제 등 일부 제품의 가격상승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석유화학 원자재는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상승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7-8월 또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공급여력이 충분하고 화학섬유, 플라스틱 가공기업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도 이어져 수급물량은 안정적이나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추이



† 구리가격은 왼쪽 축 기준, 나머지는 오른쪽 축 기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의 호조세와 국제유가 불안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기의 호황세 지속 여부, 중국의 긴축정책 유지 여부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세 시세를 반영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상의 왜곡으로 인한 마찰적 수급차질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27>